

圖書館人的 價值觀

姜 俊 浩
國會圖書館書誌擔當官

1. 머 리 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自手成家하여 富를 얻은 一部사람들은 貴를 갖추려고 돈으로 그걸 사려 한다. 또 아까운 青春을 불사르고 어려운 國家考試에 合格하여 富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地位 즉 貴를 얻은 一部사람들은 自己 地位를 利用하여 富를 얻고자 한다.

富만을 갖춘자가 貴를 구하고 貴만을 갖춘자가 富를 구하겠다는 慾望은 東西古今을 통하여 사람들의 共通된 心理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圖書館人들은 東西古今의 사람들이 共通으로 渴求하는 富와 貴와는 因緣이 먼 位置에 놓여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러한 位置에 있는 圖書館人들이 富와 貴만을 찾아 뛰어 간다면 그 自身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그로 因하여 그 圖書館도 敗家亡身이 되고 말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圖書館人으로서 오늘의 圖書館과 將來에 對하여 無關心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圖書館의 現實이 보다 나은 方向으로 變化되기를 바라는 것이 圖書館人들의 共通된 希望이며, 現實의 바람직한 變化가 생길 수 있기 위해서는 圖書館人들의 價値觀이 우선 바로 서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富와 貴와는 因緣이 먼 圖書館人들이 가져야 할 價値觀이 어떠한가 할것인가에 대하여 愚見을 披瀝해보고자 하며 여기서의 價値觀이란 「觀念으로서의 價値觀」과 「行動의 原動力으로서의 價値觀」을 뜻하며¹⁾ 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무엇이 옳다고 또는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問題에 關한 것²⁾을 뜻한다.

2. 問題의 所在

永遠의 次元이 사라지면서 時間은 人間으로 하여금 甘내하기 어려운 變動에 直面하게 한다. 이와같은 變動에 直面하는 人間에게 있어서 時間은 好機를 마련하여 주기도 하고 重壓을 하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時間은 盟友도 될 수 있고 敵으로도 될 수 있다. 이와같은 歷史의 한 瞬間에 있어서 個人과 社會의 變動觀은 그 全般의 行動에 重大한 意義를 賦與하며 向後의 發展途程에도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³⁾ 變動을 매하는

人間의 態度에는 세 가지의 基本的인 型態 즉 積極의 消極的, 兩向的(Ambivalent)인 것이 있다. 어떤 行動 또는 反動의 性向으로 理解할 수 있는 이와 같은 態度의 差異는 過去, 現在, 未來의 行動傾向에 對하여 影響을 미치고 또 수식한다. 特定時觀(Time Perspective)과 變動에 대한 態度 이 兩者가 結合될 경우 人間의 行動態勢를 臆잡이하는 大略的 傾向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와같은 大略的 行動傾向을 가리켜 時間志向 또는 時觀(Time Orientation)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變動에 對하여 積極的 態度를 取하는 人間에게 있어서는 時間은 좋은 機會를 열어준다. 그것은 知識의 幅을 넓힐뿐 아니라 未知의 未來에 대한 探究心을 일으켜 준다. 時間은 또한 個人과 社會로 하여금 外部世界를 따라 가려는 意慾을 불러 일으키고, 보다 밝은 未來를 開拓하려는 人間의 鬪爭에 있어서 時間은 그에게 有助한 道具가 될 수 있다는 信念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積極的인 變動觀을 가진 個人이나 集團은 時間과 未來에 對하여 信賴를 가지며, 이것은 다시 確固한 未來像을 約束한다. 이러한 指向은 보람찬 未來를 向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積極的이고 前向的인 時觀을 發展型(Developmentalist)이라 부른다.⁵⁾

이와 反對로 變動을 消極的인 立場에서 볼 경우, 時間은 견디기 어려운 重壓으로 化한다. 時間은 너무나도 急激하고 不可解하고 不可抗力的인 下位變動의 連續으로 나타나 激動의 渦中에 處한 人間으로 하여금 困惑과 無力을 느끼게 한다. 變動에 對하여 消極的 態度를 取하는 個人이나 集團은 時間과 未來를 不信한다. 時間과 未來에 對한 不信은 結果的으로 逃避的 態度를 낳는다. 이것은 時間에 對한 重壓으로 말미암은 虛弱의 態度이다. 우리는 「未來」라는 概念은 目的에

1) 金泰吉, 人間回復序章, 三星文化文庫, 27 1974, p.14.

2) 朴東緒 等著, 國家發展論, 서울大出版部, 1975, p.81.

3) 指向내지 態度와 發展과의 關係를 淸급한 著述家, 思想家들은 社會人類學, 經濟學, 神學 등 廣範한 分野에 걸쳐 發見 할 수 있다.

4) Tamotsu Shibutani, Society and Personalit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1961, p.119.

5) 李漢彬, 社會變動과 行政, 博英社, 1968, p.23.

依存한다.⁶⁾

過去는 人間의 現在行動에 있어서 요긴한 것이다. 왜냐하면 過去야 말로 知識의 貯藏庫이며 人間의 現在行動은 그가 記憶하고 있는 過去の 經驗內容에 의하여 引導되기 때문이다. 메리, 스투어트(Mary Stuart)가 지적하였듯이「過去の 意識을 剝奪당한 個人 또는 社會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⁷⁾ 反面에 未來라고 하는 것은 그 自覺하고 있는 目的의 未完成의 領域이다. 이러한 目的의 確定 여부는 어느 정도 記憶에 左右된다. 우리의 所願은 주로 記憶의 所産인 여러 가지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 왜냐하면 비록 目的이라고 하는 것이 유독 過去 經驗에만 依存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目標指向에 정밀성을 賦與하는 것은 過去 經驗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이 舍目的的 活動을 營爲하기 위하여는 記憶과 抱負, 過去와 未來가 現在와 더불어 渾然一體를 이루는 가운데 未來를 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와 같이 時間體驗이 統合될 경우 그 사람은「發展型時觀」을 가진다. 이런 時間體驗의 統合이 이루어지지 못하면「逃避型時觀」이나「搾取型時觀」이 支配한다.

發展이 達成하기 어려운 課業인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發展型」時觀의 出現이 常例라기보다 차라리 例外라는 點에 있다.

「逃避型」時觀의 所持者들은 주로 過去の 事件들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認知作用을 組織하는 것이 事實이나, 때로는 空想的 未來에의 逃避의 形式을, 때로는 非現實의 現在가운데에서의 逃避의 形態를 取하는 경우도 있다.

「搾取型」(Exploitationist)時觀은 過去도 未來도 모두 두려워하며 그것들의 現在에 대한 影響을 차단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最大限으로 利用하고자 한다. 명백히 이것은 享樂型(edonistic)指向이다. 現在에서 마음껏 享樂을 追求하자는 것이 至上目標이다.

「發展型」時觀은 主된 方向이 未來다. 이 時間이 未來에 適用되면 進取的 指向이 되어 計劃性 있고 冒險을 甘受할 줄 안다. 이와 같은 指向은 進歩를 위한 뚜렷한 「비전」을 낳는다. 將來를 計劃하는 사람은「時間은 至高的 價値로 評價된다.」 왜냐하면 追求價値가 具現되는 것은 時間의 흐름 속에서이기 때문이다.⁸⁾

現在 우리의 圖書館에 職員이 100名을 넘는 圖書館은 불과 2,3個館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圖書館이 1名에서 수십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圖書館들의 指導者에 속하는 管理者級들은 거의가 50代로서 學校敎育을 받은지도 오래되고 一般職員들과의 世代 差異도 많다. 특히 젊은 世代와 늙은 世代 사이의 生活感情의 差異는 巨視的 協同에 지장을 가져올 정도로 현저하

다. 이러한 與件들이 上記에서 살펴 본 時觀의 類型에 接近시켜 볼때 이 세가지의 類型들의 價値觀이 틀림은 너무나 當然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圖書館人들은 이 세가지의 類型中 어느 類型에 속해야 하며 그 속한 類型에 따라 價値觀은 差異가 날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假說로서 만약에「逃避型」時觀이나「搾取型」時觀을 가진 圖書館人이 많은 곳에서는「發展型」時觀을 가진 圖書館人은 설 곳이 없을 것이고 反對로 發展型時觀을 가진 圖書館人이 많은 곳에서는「逃避型」이나「搾取型」時觀을 가진 圖書館人들이 설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後者の 경우는 圖書館自體로 본다면 問題가 될 것이 없으나 前者의 경우가 있다면 너무나 큰 問題로 組織의 機能이 서서히 腐蝕되어 가는 問題가 惹起되지 않을까 한다.

3. 價値觀의 類型과 生活態度

價値觀의 類型과 生活態度는 먼저 現代 韓國人의 價値觀과 生活態度를 考察하고⁹⁾ 圖書館人の 價値觀과 生活態度를 그에 接近시켜 보고자 한다.

1) 價値觀의 類型

사람들의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은 性別, 年齡, 地域 등에 따라서 다르며, 個人的 氣質과 性格에 따라서도 현저한 差異를 보인다. 그러므로 한 國家 또는 民族의 成員 모두가 한결같이 나누어 가진 價値觀의 特色은 찾아 보기 힘들다. 다만 千差萬別한 思考方式과 行動樣式 가운데도 時代와 民族의 特色을 나타내는 優劣한 傾向은 있기 마련이니, 우리 圖書館人의 價値觀에 關하여 그 基調를 흐르는 몇가지 一般의 傾向을 살펴 보고자 한다.

現代 圖書館人들에게 흔한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의 代表的인 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것들 사이의 異質的인 것들의 混合과 그로 말미암은 不調和를 發見한다. 우리들의 思考方式 내지 行動樣式의 代表的인 것들 사이에 異質性和 不調和가 흔히 發見되는 根本的인 理由의 하나는 그것들에 유래한 根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들의 價値觀의 어떤 것은 東洋의 傳統의 강한 影響아래 發達된 反面에 다른 어떤 것은 西歐的 近代思潮의 강한 影響을 받고 形成된 것이며, 그들 影響의 두 源泉이 본래 根本的 異質性을 내

6) 時間體驗을 分析한 著書로서는 Mary Stuart, The Psychology of Time,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 Co., 1925, pp.20~28.

7) Ibid., p.22

8) 李漢彬, 前揭書, pp.21~31.

9) 金泰吉, 前揭書, pp.20~35.

드렸던 까닭에 源泉을 달리하는 思考方式 내지 行動樣式 相互間에 異質性과 不調和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圖書館人의 價値觀의 一般의 特色을 주로 東洋的 傳統의 影響 아래 형성된 것과 西歐的 近代思潮의 影響을 받고 形成된 것으로 나누어 展開해 보고자 한다.

東洋的 傳統의 遺産을 強하게 반영한 韓國人들의 價値觀의 一般의 特色 가운데서 다음 세 가지를 가장 현저하고 중요한 것으로 본다. 첫째, 「家族主義的」이라고 부를 수 있는 思考 내지 行動의 傾向이며 둘째, 思考 및 行動에 있어서 理智를 앞지르는 感情의 優越性, 外觀과 形式을 尊重히 여기는 性向이다.

첫째인 家族主義는 오랜 傳統을 가졌다. 그것은 家族를 生活의 基本單位로 삼는 오랜 社會制度를 背景으로 삼고 形成되었으며, 血緣關係와 家族倫理를 人倫의 根本으로서 崇高한 儒敎思想의 후원을 받고 成長하였다. 우리의 경우 家族主義는 特別히 朝鮮王朝時代에 더욱 強化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家族主義란 어떤 理論體系의 이름이 아니라 家族에 대한 愛着내지 關心이 다른 意欲과 動機를 壓度하고 行動의 主導權을 잡는 生活 態度를 가리키는 말인데 家族主義的 生活 態度는 家族의 번영 또는 家內의 榮華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그것은 한편으로는 個人主義와 對立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主義 내지 國家主義와 對照를 이룬다.

오늘의 우리는 한편으로는 西歐的 個人主義의 물결이 휩쓸어 들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의 利益과 民族의 團結이 強調되는 狀況 속에 있다. 이러한 狀況인 까닭에 우리의 家族主義도 점차 그 勢力이 쇠퇴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殘影은 상당히 濃厚한 색채를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近來 民族主義의 새로운 물결을 타고 사람과 사람사이를 平等한 橫的 關係로서 理解하는 觀念이 보급되는 한편, 家父長의 權威主義도 점차 弱화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여러 人間關係에 있어서 그 殘在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圖書館도 例外일 수는 없다. 現在 圖書館 등의 管理者級의 몇몇 사람은 자신이 우리 圖書館界의 先驅者요 開拓者로 自負하고 自己들 몇몇 外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性向이 強한 듯하다. 이것은 그 옛날과 같이 全國적으로 館數가 數千館에 지나지 않고 그에 勤 職員도 수십명에 지나지 않은 時期는 家族의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館數가 數千이 되고 職員도 數千名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職員들이 그 몇몇 先任者 보다 能力이 부족하다고 볼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職員을 評價해야 할 경우 實質的

인 評價를 해야하는데 우선 自己와 個人的인 어떤 關係가 있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評價하는 傾向이 強한 듯 하다.

두번째인 理智보다도 感情이 優劣하게 作用하는 傾向은 感情이 뜨겁고 情緒가 풍부한 것은 우리의 한가지 特色이며 이 特色은 여러 分野에서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優劣한 感情이 언제나 좋은 方向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合理的이며 냉정한 態度가 要求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感情을 알세워 흥분하는 事例가 많으며 客觀的 基準을 따르는 公正無私한 처사가 要請되는 마당에서, 情愛에 끌려 公과 私를 混同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여기서 圖書館의 경우도 어떤 職員의 能力이 어느 時期는 優秀하게 評價되다가 어느 時期는 좋은 評價는 고사하고 評價의 대상에서조차도 除外된다고 하는 事例가 있다면 이것은 理智보다도 感情이 優劣하고 公正無私한 評價라고 보기에는 어딘가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세번째인 外觀과 形式을 尊重히 여기는 性向은 衣食住 어느 生活의 側面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衣生活에 있어서 속옷보다는 겉 옷에 더 치중하는가 하면, 식탁을 차릴 경우에도 內容과 營養價보다도 겉 모양과 가지수에 더욱 신경을 쓴다. 또 建物에 있어서도 室內의 施設이나 實用的 고려보다도 대문, 단장, 걸, 벽 따위의 걸로 드러나는 部分에 力點을 둘 경우가 많다. 圖書館도 이와 다를 바 없어 藏書나 內部施設 보다도 外形을 더 중시하며 그 圖書館의 案內(P.R)冊字의 內容과 실지와는 상당한 差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當然視되고 있는 實情이다.

2) 生活態度

오늘날 우리의 生活態度에는 傳統的인 意味로 東洋的이라고 보기 어려운 몇 가지 特色이 나타나고 있다. 이 새로운 特色들은 現代의 物量文明을 背景으로 삼고 發達한 것으로 보이며, 西歐的이라고 보다는 現代的이라고 보는 것이 더 正確할지 모르나 주로 近來 導入된 西歐的 價値 風士의 影響을 받고 形成된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生活態度 가운데서 다음 세가지를 들고 자 한다.

첫째, 金錢萬能의 風潮...우리는 지금도 觀念과 言語의 世界에서는 金錢 내지 物質을 가벼히 여기는 氣風을 堅持하는 한편 精神的 價値의 優位를 強調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實際의 行動의 世界에 있어서 가장 支配的인 動機의 구실을 하는 것은 金錢 또는 物質에 對한 慾望이다.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願하는 行動을 실천하

게 하는 가장 効果的인 方法이 돈과 財物로서 유혹하는 手段이라는 사실이다. 「이 世上에 돈 가지고 안되는 일이 없고 돈 없이 되는 일도 없다」는 말이 단순히 能답으로 들리지 않고 어떤 實感을 동반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현상이다.

金錢과 財物에 對한 極度の 崇尚을 가장 여실히 나타내는 것은, 어떤 사람이 評價의 대상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이 소유하는 財産 또는 經濟的 活動의 能力이 큰 比重을 차지 한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言語의 世界에 있어서는, 人物評價의 眞正한 基準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사람의 內面的 人品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지만, 實際 行動으로써 사람을 대접하는 마당에서는, 그가 所有하는 財産과 經濟的 能力에 큰 比重을 두는 것이 우리들의 實情이다.

理代 우리 社會에 있어서 金力과 權力的 函數關係가 매우 긴밀하다는 사정으로써 말미암아 金錢萬能의 風潮가 權力에 對한 慾求를 더욱 자극한 듯한 인상이 強하다.

序頭에 지적한 바와 같이 富와는 因緣이 먼 圖書館界에 있어서도 近來에 金錢萬能의 風潮가 高潮되어 職員들 評價(人間的인 대접)에 있어서 內面的 人品과 實力(實績)이 아니고 經濟的 能力에 큰 比重을 두는 듯 하여 證券市場에 上場되는 株價와 같이 어떤 때는 評價가 좋고 어떤 때는 評價가 나쁜, 그 頻度가 너무 많은 듯 하고 돈이면 안되는 일 없다는 風潮가 어디에서 왔는지 심히 우려되는 일이라 하겠다.

물론, 官能的 快樂에 對한 優先的 追求...면 將來를 내다보고 遠大한 目的을 위해서 참고 努力하는 길보다도, 우선 當장의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경향이 대체로 強하다. 흥미 위주의 印刷物이 良書를 물리치고 出版界를 장악하는 현상등은, 그러한 경향을 立證하는 代表的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官能的 快樂을 좇는 것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온 世界에 걸친 一般의 현상이다.

사람들이 돈을 가장 열심히 追求하는 社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商品化하는 경향이 있다. 學問, 藝術, 教育, 運動, 技術 그리고 심지어는 宗教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化한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욱 팔아먹기에 적합한 것은 官能的 快樂이다. 學問 또는 藝術과 같은 精神的 價値를 실현하는데는 돈이 必要的인 사실이나, 돈과 아울러 많은 時間과 努力을 바쳐야 한다. 이에 比하여 官能的 快樂은 돈만주면 當장 손쉽게 얻을 수 있을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곧 感覺的 慰勞를 주는 까닭에, 商品으로서의 매력이크다. 이러한 風潮는 圖書館界에 있어서도 國家書誌 주로 二次資料의 發刊을 끈기있게 推進하는 것보다 여기 저기서 導出하여 單日日內에 發刊할 수 있는 單行本을 發刊하여

人氣를 얻고 冊값이 많이 나간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즉 商品的인 效果가 있는 冊을 發刊하고자 온갖 아이디어를 集中하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게 보인다. 원래 國家中央圖書館이나 專門圖書館에서는 주로 二次資料인 目錄, 索引 등을 發刊하여 各界의 專門家가 그것을 利用하여 自己 分野의 研究에 時間을 단축하고 좋은 著書를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는 지금 正道인 雜誌作業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우려할 일이다.

세계, 個人主義 내지 利己主義的 行動傾向...西洋의 경우는 合理的 思考의 傳統이 強하고 계몽된 大衆의 自己 權益에 대한 主張이 活潑했으므로 強者들의 利己主義의 囂포를 어느 정도 牽制할 수가 있었으나 우리의 경우는 合理的 思考의 傳統이 결여되고 大衆의 權利意識이 弱했을 뿐만 아니라 自由主義 또는 個人主義의 이름으로 導入된 西歐의 思潮가 절제없는 利己主義에로 轉락하는 경향을 막지 못한 結果가 되었다.

오늘날 金錢과 官能的 快樂을 追求하는 남의 權益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態度를 옳다고 말하지 않으며 아마 마음 속에서 또 그 길이 옳다고 確信하지는 않을 것이다. 自己 홀로 조용히 반성하는 순간에는 아직도 人格이나 義理나 常識 따위의 것이 돈이나 享樂보다 貴重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言語로써 討論에 參加하거나 남의 行動을 評價할 경우에는 利己的 行動을 비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自己가 實際로 어떤 行動을 取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自己 平소의 생각이나 말과는 달리 돈이나 享樂을 위해서 人格 또는 義理를 손상하기도 하고, 自己의 利益을 위해서 남의 權益을 침범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觀念으로서의 價值觀」은 여전히 傳統的 體系의 테두리를 지키고자 하는데, 「行動의 原動力으로서의 價值觀」은 딴 길로 달아 나는 것이다.

圖書館人들은 「行動의 原動力으로서의 價值觀」을 가진 사람은 適合치가 않을 것이다.

4. 圖書館人이 가져야 할 價值觀

바람직한 價值體系의 基準을 定함에 있어 이것이 꼭 圖書館人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며 圖書館人은 一般人들의 價值觀과 生活態度와는 다른 즉 富와 貴와는 거리가 먼 文化事業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옛 선비의 志操를 가지고 圖書館機能에 맞는 價值觀과 生活態度를 가져야만 自身은 물론이려니와 圖書館도 發展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價值觀으로 받아들일 것을 制御하고 싶은 基準前提는 倫理나 價値의 體系도 우리 圖書館人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原則이다. 이러한 原則의 첫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人間生活」이라 하겠다. 이것은 적은 사람의 慾求를 만족시키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慾求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 個人의 部分的 慾求를 만족시키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의 人格 全體의 慾求를 만족시키는 편이 바람직 하다.¹⁰⁾ 두번째는 「論理의 一貫性的 要請」이다. 論理의 一貫性的 要請이 바람직한 價値體系의 條件으로서 提示하는 첫째 原則은 觀念의 體系와 行動의 體系가 되도록 一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머리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바와 실제로 行動하는 바가 一致해야 한다. 두번째 原則은 觀念의 體系와 行動의 體系가 각각 그 體系의 內部에 있어서 論理의 整合性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例컨대 어제 말한 바와 오늘 말한 바 사이에 모순이 있거나 狀況에 本質의 差異가 없는 두곳에서 한 行動사이 에 모순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 나에게 適用되는 規範과 남에게 適用되는 規範이 서로 달라도 안 된다. 一般적으로 말해서 兩立할 수 없는 두 가지 原則을 主擧하거나 서로 모순된 原則에 따라서 行動하는 것은 論理의 一貫性的 要請을 배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위에서 우리는 價値體系의 評價를 위한 基準 내지 條件을 살펴 보았고 그러한 基準에 接近시켜 볼때 圖書館人들은 어떠한 價値觀을 가져야 할 것인가?

家族主義, 感情의 優勢, 外觀과 形式의 尊重도 다 그대로의 長點도 있다. 그러나 程度가 問題인 것이고, 時期와 場所가 問題인 것이다.

金錢萬能의 風潮, 官能의 快樂, 利己主義 등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일면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들이 結合되어 이루어진 全體로서의 價値體系는 많은 결함을 가질 수가 있다. 훌륭한 價値體系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體系를 構成하는 여러 要素들이 하나의 妥當性있는 근본 原理의 一貫性 있는 媒介를 통하여 調和로운 關係를 이루고 統合되는 일이다.

이 점은 바로 바람직한 價値體系의 條件의 하나로서 이미 지적한 바 있는 「論理의 一貫性的 要請」의 問題에 연결된다. 이것이 연결되지 못할 때 價値體系의 혼란이 오는 것이다. 價値體系의 혼란은 社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個人의 마음 속에도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바 또는 行動하는 바에 變動이甚하다. 어느 때는 매우 急進的인 言行을 하는 사람이, 다른 때는 매우 保守的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平常時는 늘 合理主義를 力說하던 사람이 때로는 매우 不合理한 處事를 옹호하기도 한다. 요컨대 어제와 오늘, 또 이곳과 저곳 사이에 論理의 一貫性이 부족한 것이다.¹¹⁾ 쉽게 말하면 信義가 없고 表裏가 不同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論理의 一貫性的 부족으로 인하여 즉 價値體系의 혼란으로 못 사람들에게 精神的인 被害, 物

質的인 被害를 주고도 그러한 被害를 준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論理의 一貫性的 부족을 아마 手腕이나 貫錄으로 錯覺한다면 이것이야말로 目不忍見이 아닐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첫번째로 提示한 바람직한 人間生活이 아니다.

다만 하나의 僞善을 가장한 「逃避型」時觀을 가진 자이거나 아니면 「搾取型」時觀을 가진 사람들입에 틀림이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富와 貴와는 因緣이 먼 圖書館人들이 富와 貴를 追求할때 價値體系의 혼란은 急速도로 올 것이며, 論理의 一貫性이 부족한 사람들의 所致로 圖書館人들은 流行의 바람에 따라 이리 저리 나부끼고, 各者의 個性을 잃고, 남의 것을 모방하고, 남의 눈치를 보는 풍조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各者는 主體性을 상실하고 그 本然의 모습으로 부터 멀어져 감을 意味한다. 한 民族 한 國家에 主體性이 要求되듯이 個人에게도 主體性은 必要하며 그것을 잃을 때 人間으로서의 本然의 모습도 퇴미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남의 눈치와 評價에만 神經이 銳敏한 것은 自己 自身을 하나의 商品으로 자처하는 현상이다.

自己의 價値를 內在하는 能力과 人品에 의하여 측정하지 않고 남의 嗜好 즉 交換價値에 의하여 측정하는 性格을 「프롬」은 「장사꾼의 性格(Marketing Orientation)」이라 부르고 現代人의 대부분이 이 性格의 所有者라고 하였다.¹²⁾

圖書館人들은 이 「장사꾼의 性格」의 價値觀을 탈피하여 「觀念으로서의 價値觀」 즉 平生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思考方式이나 行動樣式이 너무 物質에 치우치지 않고, 事物과 사람을 보고 또 그것을 評價해야 할 경우 感情이나 經濟的 價値로 할 것이 아니고, 內面의 人品을 중시하는 人間 本然의 자세에 價値觀을 두어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圖書館人은 오로지 어느 한 구석에라도 眞理가 담겨져 있는 數 많은 種類의 冊을 다루는 職業에 從事하는 사람이다. 하루 종일 말 없는 冊과 속삭여 世月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동안 사람을 支配하는 富와 貴와는 因緣이 멀어졌다. 그러므로 圖書館人이 갖는 價値觀은 一般人의 價値觀과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지 못할때 많은 問題點과 虛無가 뒤따를 것이다.

現代는 富와 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富와 貴를

10) R.E.Perry, The General Theory of Valu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p.115, p.617.
 11) 金泰吉, 前揭書, p.48.
 12) E.Fromm, Man for Himself, New York, 1947, pp. 67~68.

갖지 못한 사람은 權威意識을 느낀다. 또 富와 貴가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權威行事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富와 貴로 評價된다. 富와 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富와 貴가 없는 사람을 人間以下로 보고, 그 反面에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上典」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한다. 그렇지만 眞正한 貴를 갖춘 사람은 貴를 利用하여 富를 얻으려 하지 말고 貴의 品位를 지킬줄 알아야 한다.

權力없는 사람이 權力있는 사람을 하나의 「神」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서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기 보다는 그 사람이 정당하게 行事하는 權力으로서 恩약한 自己 자신이 하나의 獨立的인 人間으로서 存在하려고 努力함이 바람직하고 富貴하지는 않지만 志操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志操없이 富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幸福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바람 부는데로 正當하다는 말만으로 一身의 安慰와 身邊保護만을 至想課業으로 생각하는 「逃避型」時觀이나 「搾取型」時觀을 가진 즉 圖書館 業務가 利權業務나 民願業務가 아니라서 職員의 業務上의 無能이나 잘못으로 上官에 미치는 경향이 없다고 해서 아무리 無能하거나 實績이 없어도 業務와의 側面으로만 잘하면 원만하고 人間關係가 좋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하기 위해서 意見을 提示

하거나, 잘 못된 점을 是正하고자 하는 意見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同僚 비방을 하는 사람으로 看做할 것이 아니고, 進取的 指向과 計劃性있고 冒險을 甘受할 줄 아는 「發展型」時觀으로 알고 「發展型」時觀을 가진 사람이 많을때 圖書館은 本然의 機能으로 發展하게 될 것이며 이르기 위하여 圖書館人은 「觀念으로서의 價值觀」을 가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金泰吉, 새로운 價值觀의 志向, 民衆書館, 1969.
2. 金泰吉, 李朝時代 小說에 나타난 韓國人의 價值意識研究, 省谷論叢 第三輯.
3. 金泰吉, 人間回復序章, 三星文化文庫 27, 1974.
4. 朴東緒, 國家發展論, 서울大出版部, 1975.
5. 李漢彬, 社會變動과 行政, 博英社, 1968.
6. 崔光烈, 價值觀의 革命, 子午文化社, 1975.
7. 洪承稷, 「知識人」과 近代化 韓國人의 態度調査, 高麗大學校, 1967.
8. 朝鮮日報, 專論, 드 外國人이 말하는 우리의 意識構造, 1977. 6. 18.
9. Fromm, E. Man for Himself, 1947.
10. Fromm, E. The Sane Society, 1958.
11. Mary Stuart, The Psychology of time, 1925.
12. R.B. Perry, The General Theory of Value, 1954.
13. Shibutani Tamotsu, Society and Personality, 1961.

各 圖 書 館 必 携 의 參 考 文 獻

R. R. BOWKER COMPANY

BOOKS IN PRINT: Author Index: Title Index 1974. 4 vols
 SUBJECT GUIDE to Books in Print 1974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 15/e
 IRREGULAR SERIALS AND ANNUALS. 3/e

MARQUIS WHO'S WHO, INC.

Who's Who in America, 38/e
 Who's Who in the World, 1/e

AURT FRANKLIN

Courant, M.,	Bibliographie Coreenne. 3 vols	\$ 90.00
Howorth, H. H.,	History of the Mongols from the 9th to the 19th Century 4 vols.	\$ 200.00
Kerner, R. J.,	Northeastern Asia, a selected bibliography: contributions to the bibliography of the relations of China, Russi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 Manchuria, and eastern Siberia, in Oriental and European languages. 2 vols	\$ 57.50

弊社에서는 上記 出版物의 韓國總販으로 註文을 拜受하고 있어오니 많이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株式會社 汎文社
 서울鍾路區鍾路1街40 電話 (72) 5131-33